

기행문

만성초 5학년1반 안강민

지난 토요일에 김해 롯데 워터파크에
가다가 산청휴게소에 들렀다.
그곳에 허준 테마파크가 있었다.
예전에 가본 곳 이었다.
예전에 갔을때는 고양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아쉬웠다.
하지만 매미 탈피각 덕분에 덜 아쉬웠다.
그리고 그곳엔 허준 선생님의 동상과 이야
기가 있어 둘러보았다.



휴게소를 지나 워터파크에 도착했다.
김해롯데워터파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크다.
워터파크 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
다른 사진을 가져왔다.워터파크에서
수영 연습도 하고,
파도풀 에서도 놀고,
햄버거도 먹고 많은 것을했다.
다놀고 나서 락커룸에갔는데 다른락커룸
이어서당황했다.
우리는 다놀고나서 부산에 있는 숙소에
갔는데 너무좋았다.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많은걸했다.
또 빙수도먹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책도 봤다.
그러다 지쳐서 잠을잤다.
일어나서 국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벅스코 라는 곳에있는 키즈카페에 가다가 길을 잘못들어 고생했다.



벅스코에 있는키즈카페에서 많이놀았다.
움직이는 로봇도 타고, 장애물도 지나고,
기차도타고,미끄럼틀도타고,
음식도 먹고, 많은 것을 했다.
그중에 미끄럼틀은 종류가 다양했다.
그중에는 성 미끄럼틀도 있었다.
엄청 높아서 처음엔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왔다.
두번째에 탔는데,엄청재밌었다.
놀다가 집으로 갈려고 차를 탔는데,
아빠가 할머니 택으로가서
할머니,할아버지랑 저녁을
먹고 집으로왔다.
힘들지만 재밌는 하루, 아니 이틀이었다.

